

칼럼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아름다운 배롱나무 가로수 꽃길

올해는 장마가 계속되었고 입추와 말복이 지나 가을 절기로 접어들었지만, 폭염의 날씨가 이어지는 중에 도로변에 심어진 배롱나무 가로수 꽃길이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5월에 절정을 이룬 꽃이 장미꽃이라면 6~9월까지 여름내 피는 꽃은 배롱나무꽃이다. 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는 방풍, 방진, 방서, 방한의 효과도 있지만, 가로수가 그 지역 특화된 미관을 장식하는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여름철인 요즘을 화순군 관내 도로에 배롱나무 꽃길 조성이 잘 되어 도로를 달리는 차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배롱나무는 백일홍(百日紅) 나무라고도 하며 여름철에 백일 간 꽃이 피고 있어 생기어린 이름이기도 하다. 꽃이 여름내 피고 지고 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단풍나무 가로수가 버튼을 받아 도로변을 장식한다.

일촌 일품의 특화된 관광사업 차원에서 특화된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진도대교를 건너가면 국도변에 무궁화 가로수가 심어져 특색 적으로 가꾸고 있으며 화순군에서는 배롱나무 가로수 가꾸기를 지방특화 사업으로 국도 구간 149Km에 가꾸고 있어 배롱나무 가로수 꽃길을 이루고 있으며 전남 도내 각시군에서도 배롱나무 가로수를 구간별로 심어 배롱나무 꽃길을 만들었으며 배롱나무에서 풍기는 동양화 미감을 느끼게 한다.

무 가로수 가꾸기를 지방특화 사업으로 국도 구간 149Km에 가꾸고 있어 배롱나무 가로수 꽃길을 이루고 있으며 전남 도내 각시군에서도 배롱나무 가로수를 구간별로 심어 배롱나무 꽃길을 만들었으며 배롱나무에서 풍기는 동양화 미감을 느끼게 한다.

배롱나무는 전라남도에서 권장하는 가로수로서 도내, 각시군 가로수로 10여 년 전부터 심고 가꾸어 오고 있는데, 그 가로수가 이제 꽃길 가로수로 구실을 하여 배롱나무 가로수 꽃길을 장식하고 있다. 개화 기간이 100여 일이 되는 배롱나무꽃 가로수는 여름내 빨간 꽃을 피워 도로변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광주-목포 간 도로변에도 군데군데 배롱나무 가로수가 기음을 토하고 있는데 화순군 관내 도로에 들어서니 잘 가꾸어진 배롱나무 가로수가 아름답게 꽃이 피어 경관을 이루고 있었다. 전라남도에서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채택하여 심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부터이다. 배롱나무가 가로수로 채택되어 심기 시작하면서 재배법이 보급되어 묘목을 대량생산

해 재배하는 곳도 생기게 되어 배롱나무의 식재 면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가로수가 공해를 주는 수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로수는 가급적 지역 사철 푸르고 꽃이 피는 나무가 바람직한데 대부분 나무는 개화기가 짧은데 무궁화와 배롱나무는 개화 기간이 100여 일이 되며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대로변이나 마을 진입도로 변에도 배롱나무 가로수를 심는다면 경관을 이룰 것이다.

필자는 교직에 재직 중에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보급하려고 배롱나무 묘목 생산방법을 시범적으로 학교에서 시도해 보고 생산된 묘목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마을 단위로도 나누어 주기도 했었는데 배롱나무는 꺾꽂이도 잘되고 씨앗으로 심어도 발아가 잘되어 많은 묘목을 당년에 쉽게 생산할 수 있으며 이식이 잘되고 천막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배롱나무꽃잎은 4월 초에 배롱나무 삽수를 8cm 길이로 잘라 모래나 마사토에 꽃면 뿌리기를 내리며, 씨앗은 12월 중에 채취하여 4월 초에 파종하면 발아가 되

고 자라서 묘목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든 묘목을 공한지에 심으면 잘 자라는 데 키가 크지 않아도 꽃이 핀다.

배롱나무는 중국이 원산지라고 하는데 백일홍(百日紅)이라고도 하며 꽃의 색상은 빨강 분홍 흰색을 나타내는 수종으로 분류된다. 배롱나무는 한방에서 방풍염 치료 특효제로 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배롱나무를 사철이나 묘지에 꽃나무로 심고 가꾸고 있었는데, 화순군을 비롯 한 전남 도내 시군에서 이 배롱나무를 지방시군 특화사업 가로수로 채택해 조성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요즘 차를 타고 농촌 지역을 나가보면 빨강이 피어 있는 배롱나무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배롱나무가 가로수로 채택되어 대대적으로 가꾸다면 배롱나무 꽃길이 될 것이며 배롱나무는 개화 기간이 100여 일로 길기 때문에 가로수이면서 꽃길 조성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화순군을 비롯한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가로수로 심어진 배롱나무는 잘 자라서 해가 갈수록 꽃피는 꽃길 가로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배롱나무 가로수 꽃길을 달리면서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채택해 심고 가꾼 전남도민들의 앞을 내다보는 지혜에 찬사를 보내면서 배롱나무 꽃길을 조성하려던 필자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흐뭇한 보람을 느꼈다.

社說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신중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번 주 내로 막지 못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8월 이후 전국적 유행은 수도권 소재 교회에서 시작됐으나 지역별로 수도권과 관련되지 않은 산발적 집단감염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지난 15일 155명을 기록한 이후 10일 연속 100명 이상 나타나고 있다. 16일부터는 9일째 2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2주일간 국내발생 신규확진자는 총 2869명으로, 하루 평균 204.9명에 달한다.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 중 하나가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100명 이상이다.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더뉴스' 의뢰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감염세를 잡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게 될 위기에 처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5.9%로 나타났다.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0.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되면 고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와 학교 등교 수업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지자체나 공기업 등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필수 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는 것이다.

전국적인 2단계가 조치가 지난 23일부로 시작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는 최소 일주일 후부터 나타난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방역조치에 동참한다면 3단계까지는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관련 시작된 감염이 이번주가 추가 전파·확산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주에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게 될 위기에 처한 다. 국민 모두가 이번 주는 꼭 필요한 외출을 제외하고 집에 머무르길 바란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Table with 2 columns: 호남신문 and 대표전화. Contact information for Honam News.

독자투고 section with email address ihonam@naver.com and a note about article submission.

휴가철 코로나 19 감염예방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야외활동을 자제하여 왔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많은 실내뿐만 아니라, 계곡, 야영장 등 실외 활동이 많은 만큼, 개인위생수칙 미준수 등으로 인해 바이러스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상 감염확산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다.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말을 통한 전파이므로 마스크 착용은 차단을 위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준수해야 하며, 상호간에 미착용 시 감염률이 약 1.5%에 불과하다는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밀폐된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마트나 극장과 같이 여름철 시원한 곳은 찾아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에 따른 집단감염의 우려도 있으므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 해야하며, 가급적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준수하자. 야외에서 활동하다 보면 무심코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게 되는 경우를 보는데, 이런 경우 직접 접촉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씻기로 감염 예방을 해야한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